

절제된 균형으로 설명되는 이슬람의 다양한 이야기

황의현 지음,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문명의 위대한 모험』(씨아이알, 2023)을 읽고

김형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I. 들어가며

이슬람(Islam)은 기독교, 힌두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 4대 종교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종교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Islam)을 믿는 신도, 무슬림(Muslim)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 기관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무슬림이고, 약 19억 명의 무슬림이 우리와 같은 지구 공동체에 살고 있다. 서평을 작성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의 무슬림 수는 늘어나고 있다. 신도 수에서 이슬람은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다. 혹자들은 기독교를 개신교와 천주교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단연 이슬람의 신도 수가 현재 세계 1위라고 말하고, 2070년에는 무슬림 수가 기독교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¹ 무슬림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을 뽑자면 무슬림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이다. 높은 출산율로 인해 고민 중이라는 이슬람 국가 관련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이집트를 예로 들자면, 압둘 파타흐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대통령은 2023년 9월 내각회의에 참석하여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아 제한 정책 시행

¹ 2015년 Pew research center 조사, 2010~2050년 기간 동안의 무슬림 수의 성장률을 73%로 예측했다. 이는 35%의 성장률로 예측된 기독교 신도수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 증가가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²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걱정이 많은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무슬림들의 높은 출산율은 무슬림의 삶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법(Shariah 또는 Islamic Law), 특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알라(Allah)로부터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슬람법의 제1법원인 쿠란³과 제2법원인 하디스(Hadith, 무함마드 언행록)(Abu Dawud, 2050) 그리고 이슬람법 제정 목적(Maqasid Shariah)을 믿고 실현하려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전 세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무슬림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슬람 또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테러(Terror)를 먼저 떠올리거나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잔인한 형벌만을 바라보고 있다. 자칭 무슬림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저지르는 일을 이슬람 또는 무슬림을 대표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직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사건만으로 이슬람을 평가하고 있는 일이 많다. 비무슬림들이 오해와 편견의 시각으로 이슬람을 바라보게 한 일부 무슬림들에게도 분명히 잘못은 있다. 그러나 이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무슬림들은 이러한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무슬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에 의한 행동으로 이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이슬람이 금기시하고 있는 것을 자행하는 것이다. 파트와(Fatwa, 이슬람법 해석)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비난하고, 이슬람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며, 무지로 인해 자행된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문명의 위대한 모험』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이 완전히 무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유해하지도 않다고 얘기한다. 한국에 이미 소개된 많은 이슬람 관련 책

² 이집트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빈곤율,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다.

³ 쿠란 제7장 86절, 제19장 3~7절, 제25장 74절, 제37장 100절 등.

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절제된 균형으로 이슬람을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이 항상 옳다는 극과 이슬람은 항상 틀리다는 다른 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 책을 집필한 저자의 노력이 함축된 책 제목이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문명의 위대한 모험』이다. 아래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II. 이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인 이슬람학과 새로운 견해인 수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슬람 초기 역사와 사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서구 학자들이 주장한 수정주의(Revisionism)는 무슬림의 경전인 쿠란, 이슬람법의 제2법원으로 무슬림들에게 여러 가르침 및 지침을 제공하는 하디스와 씨라(Sira, 무함마드 전기) 등의 초기 이슬람 사료들, 전통적인 이슬람학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초기 이슬람 사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앞서 언급한 초기 이슬람 사료들이 선지자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무함마드 사후 1~2세기가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을 문제 삼으며, 초기 이슬람 사료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보다 더 나아가 초기 이슬람 사료들은 후대 무슬림들에 의해 창작된 허구일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한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이슬람 전통주의에 있어 근간이 되는, 무슬림들이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믿는 무함마드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경전인 쿠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설명하려 모호하고 암시적인 서술이 포함된 쿠란 구절을 제시하며, 쿠란의 특성인 ‘컨텍스트가 없는 텍스트(Text without context)’를 언급한다. 쿠란은 아랍어로 작성되었는데, 아랍어에 아무리 능통한 학자라도 쿠란의 아랍어만으로는 쿠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쿠란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프시르(Tafsir, 쿠란 주석학)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쿠란의 특정 구절의 경우에는 타프시르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쿠란에

서 사용된 단어 의미를 모르는 것이 많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또다시 도발적인 화두를 던진다. 쿠란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전승은 이미 단절되었고, 쿠란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후대 학자들이 쿠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들은 쿠란의 등장과 마지막 사자(使者) 무함마드가 누구인지에 대해 완스브로 등의 수정주의 학자들은 무슬림들이 정설처럼 믿고 있는 쿠란의 집대성, 등장 그리고 역사와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통주의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아직 이슬람을 바라보는 수정주의 견해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달하는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고 있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통적인 이슬람학과 그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논의를 이 책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중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저자는 이슬람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며 문화의 교류와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변화를 거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역사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맹목적으로 한 가지 시각만을 이용하여 이슬람을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판 의식 없이 전통주의 시각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수정주의 시각만을 따르고, 이를 이용하여 이슬람 또는 무슬림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III. 아랍 무슬림들의 중동 지역 정복과 이슬람 확장을 바라보는 이중잣대: 관용 또는 박해

마셜 호지슨(Marshall Hodgson)이 “나일강에서 옥수스강까지(Nile to Oxus)”라고 부른, 일반적으로 중동으로 알려진 지역은 이슬람이 출현하기 이전까지는 타 지

역과 다른 역사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동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는 문명 및 언어적 연속성을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경우는 연속성의 예외가 적용되고, 연속성보다는 변화가 더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종교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이슬람이 출현한 이후 중동 지역은 문명적, 언어적 그리고 종교적인 연속성을 보인다. 이슬람의 출현은 중동 지역의 역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슬람의 출현으로 중동 지역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독창적인 이슬람풍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나, 저자는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슬람 출현 이전의 수많은 역사적 변화와 고대 후기의 유산이 이슬람 출현 이후의 중동 지역의 이슬람풍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슬람이 출현한 지 5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아랍 무슬림들이 중동의 두 거대 제국인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를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가설로 설명하고 있고, 아랍인이 이집트 지역 정복 과정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건설된 수십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던 곳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파괴하였는지를 시기적 검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아랍 무슬림들이 이슬람 출현 이후 중동 지역을 정복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정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은 정복 이후 1~2세기가 지난 후에 무슬림 역사가들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졌다. 승자, 정복자인 아랍 무슬림들의 기록과는 다르게 패자, 피정복자들은 아랍 무슬림의 정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이다. 아랍 무슬림들의 중동 지역 정복, 기독교도가 주류였던 사회에서 이슬람이 주류가 된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한 정복에 대하여 저자는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랍 무슬림의 중동 지역 정복을 재앙과 비극이었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구원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종교적 집단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인식한 것이다. 정복이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관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와는 반대로, 정복을 일방적으로 파괴와 학살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정복이라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본인의 가치

관에 비추어 단순하게 한 가지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저자는 정복에 관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잣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랍 무슬림들이 중동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진행된 아랍어화 또는 아랍어의 전파, 아랍화, 이슬람화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막 유목민이었던 아랍 무슬림들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을 점령하고도 그들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피정복자들을 정복자에 동화시키는 데 있어 이슬람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저자의 논리 전개가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복지의 비무슬림들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지즈야, Jizyah)가 토지세와 더불어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치자들은 비무슬림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아랍 무슬림들이 정복자로서 피정복자들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을 들고 강압과 무력에 '만' 의존하여 이슬람을 전파하였다는 오해와 편견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다. 물론 저자는 피정복자로서의 비무슬림들이 부담했어야 한 세금 부담과 비무슬림들이 겪었을 탄압과 차별로 인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례가 있었고, 강압과 무력 때문에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슬람화가 늦게 이루어진 점과 비무슬림들이 무슬림들과 공존하며 살았던 점, 비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슬람의 확장을 평가함에 있어 관용 또는 박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이라는 말과 함께, 이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는 성전(聖戰, holy war)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지하드(Jihad)가 있다. 알카에다나 IS 등의 극단 무장 테러단체들은 자신들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하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지하드는 '알라를 위한 투쟁'으로 무슬림으로서 내면의 악에 맞서고 선을 추구하는 의미인 대(大)지하드와 무력을 사용하는 지하드인 소(小)지하드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한 극단 무장 테러단체들은 지하드의 본래 의미이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하드인 대(大)지하드를 간과하고, 본인들의 정당성을 위해 소(小)지하드를 강조한다. 저자는 지하드를 소개하며, 쿠란과 이슬람 전통에는 분명히 타자에 대한 폭력과 적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小)지하드를 더

강조하는 극단 무장 테러단체를 ‘진정한 이슬람’에서 벗어난 왜곡된 모습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슬람을 폭력과 야만의 종교로 단정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해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슬람법 제정 목적과 절대다수의 파트와에서는 소(小)지하드를 실천한다는 명목하에, 타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편협하지 않은 이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슬람 내에 다양한 해석, 견해, 관점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소(小)지하드를 더 강조하는 극단 무장 테러단체의 행태는 ‘진정한 이슬람’은 벗어난 것이다.

IV. 이슬람 제국 / 칼리파제 / 중세 이슬람 학문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슬람과 타종교간의 공존

무함마드 사후, ‘아부 바크르’를 시작으로 믿는 자들의 지도자이자 무함마드의 대리인, 대리자인 칼리파제(Khalifah)가 시작된다. 1대 칼리파 ‘아부 바크르’, 2대 칼리파 ‘오마르’, 3대 칼리파 ‘우스만’, 4대 칼리파 ‘알리’, 이렇게 4인의 칼리파가 재임하던 시기를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일컫는다. 정통 칼리파 시대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3대 칼리파 ‘우스만’ 시기부터 무슬림 공동체가 내분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4대 칼리파 ‘알리’가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과거 공동체의 원로들이 모여 새로운 칼리파를 선출하였던 정통 칼리파 시대의 관습은 ‘알리’의 반대파였던 무아위야가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선언하며, 무슬림 국가의 첫 왕조인 우마이야 칼리파조가 시작하게 된다. 당시 칼리파들은 본인이 무함마드의 대리인, 대리자이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 합당한 권한이 있으며, 칼리파에 복종하는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란과 하디스에 정통한 이슬람 법학자들이 이슬람법을 정립하자 칼리파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칼리파들은 이슬람 법학자들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중국에는 이슬람 법학자들이 칼리파로부터 종교적 권위를 가져오게 된다. 투르크인 군인들에 의해 암살당한 10대 칼리파 이후 압바스 칼리파들은 이전 칼리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도 상실하게 된다. 칼리파들은 무함마드의 대리인, 대리자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정치적 권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단지 칼리파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힘이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 경제적인 이유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칼리파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관리와 병사들에게 지급할 봉급이 필요하지만, 칼리파들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 노예들에게 군주의 자리를 넘겨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이후 몽골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압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칼리파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압바스 칼리파조를 세웠다. 압바스 칼리파들은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하였다. 압바스 칼리파 시기는 이슬람권에서 학문이 꽃피운 시기로 평가된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그리스 논리학 서적의 번역은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문적 발견을 할 수 있게 해준 매개체가 되었다. 수학, 의학, 천문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이 꽃피운 시기이다. 저자는 번역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을 논하며, ‘지혜의 집’이 칼리파의 후원을 받은 선도적인 학술연구기관이라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혜의 집’이 왕실의 후원을 받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료들을 살펴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세에 찬란했던 이슬람 학문의 시기가 지속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된다. 쿠란과 하디스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주의자들과 이성과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학자들 간의 갈등, 무슬림 수의 증가, 후원 세력들의 쇠퇴, 마드라사라는 교육 기관의 등장 등의 가설이 있는데, 역사학자인 저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설을 선택하고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쿠란에서 종교적 관용과 공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제2장 256절)가 있다. 이 구절은 히잡(Hijab) 이슈 또는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 종교인을 인정할 때 항상 인용되는 구절이다. 하지만, 쿠란에는 제2장 256절과는 상충되는 의미의 지닌 쿠란 구절(예를 들자면, 제9장 5절, 제9장 29절 등)이 있다. 하나의 성서에 서로 상충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까? 이를 ‘폐기’이론, 즉 후에 제시된 구절이 전에 제시된 구절을 폐기시킨다는 이론을 적용시켜 상충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학자들도 있고, ‘폐기’이론이 위 구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쿠란 제2장 256절이 현대의 가치관이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 ‘폐기’이론이 적용 유무를 떠나,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학자들이 내놓은 해석‘만’이 진정한 해석은 아니다. 쿠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늘 변해 왔다. 이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종교가 아니다. 쿠란 구절은 변하지 않지만, 쿠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V. 이슬람의 종파: 수니와 시아

이슬람에는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많은 종파가 있다. 이슬람 종파를 크게 나눈다면, 수니(Sunni)와 시아(Shia)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는 수니 무슬림이고, 나머지 약 10%는 시아 무슬림이다. 수니 무슬림은 무함마드 사후, 무슬림 공동체가 올바르게 알라의 가르침을 따라왔다고 믿고, 정통 칼리파 4인 모두가 당시의 무슬림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지도자이며, 그들은 알라와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무슬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한다. 수니 무슬림은 쿠란과 하디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중시한다. 이와는 반대로, 시아 무슬림은 4대 칼리파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4대 칼리파 알리가 무함마드 사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즉, 시아 무슬림들은 1~3대 칼리파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아 무슬림들에게 있어 1~3대 칼리파는 부당하게 선출된 자들일 뿐이다. 수니 무슬림들과 달리 시아 무슬림들은 신의 의도가 쿠란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시아 무슬림들은 쿠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디스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알라의 진정한 의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알라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한다고 생각한다. 시아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

을 지닌 자는 바로 4대 칼리파 알리와 이맘이다. 이는 수니 무슬림들의 사상과는 전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수니 무슬림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표적인 시아 무슬림 국가인 이란 간에 이슬람 분파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니 무슬림들 사이에 ‘시아 포비아(Shia Phobia, 시아 혐오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인 수니 무슬림들이 종파적으로 마이너리티인 시아 무슬림들을 혐오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니 무슬림과 시아 무슬림 모두 창조주 알라와 유일신 사상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서로를 이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VI. 나가며

저자는 글을 마무리하며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 문명의 위대한 모험』의 “대체로 무해한”을 SF코믹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서평을 쓰기 위해 이 책을 읽어 나가며, 저자가 선택한 ‘대체로 무해한’이란 명명이 정말 시의적절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역사학자인 저자는 각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료와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소개 그리고 반문을 통해 답을 이끌어 내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슬람을 옹호하는 극과 반대하는 다른 극에 치우치지 않고, 양극의 이론과 논리를 제시하면서 저자만의 새로운 주장으로 이끌어 가는 저자의 집필 방법을 볼 때, 그가 사용한 방법론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다. 이슬람은 오랜 역사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이슬람을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라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학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이슬람 혐오증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등의 이슈로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혐오 관련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슬람 문명, 문화와 접촉이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난민이나 테러 등을 직접 겪으면서 이슬람포비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접촉이 많지 않고 무슬림들과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마치 이슬람 전체로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크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진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 보도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지기 쉽게 된다. 이 책에서 극도로 지양하고 있는 극으로의 치우침,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무슬림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절제된 균형적인 관점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 문명의 위대한 모험』을 정독하는 것이 어떨까.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대체로 무해한 이슬람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이슬람 문명의 위대한 모험』을 필독서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롭고 훌륭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남긴다.

투고일: 2024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1일

참고문헌

- Pew research center. 2015.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5/04/02/religious-projections-2010-2050/> (검색일 2024. 3. 3.)
- State information service. "President El-Sisi: Having children in Egypt is a freedom that must be regulated to avoid disaster." <https://www.sis.gov.eg/>

Story/185584/President-El-Sisi-Having-children-in-Egypt-is-a-freedom-that-must-be-regulated-to-avoid-disaster?lang=en-us (검색일 2024. 3. 3.).

Quran.com (검색일 2024. 3. 5.).

Sunnah.com, <https://sunnah.com/abudawud:2050> (검색일 2024. 3. 5.).